

## 예수의 고난에서 찾은 부활의 현실

이미 앞마당에서 수난사를 어떻게 서술했는지 보았는데,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성격화할 수 있다. 그를 처형하기까지의 재판과정이 철저히 불의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학계에서 그것은 로마권력과 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이면 예수 처형의 책임을 로마에 돌리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로마는 예수에 대해 무죄하다고 변호하는 입장이었음을 나타내려 했다고 본다. 그럴 가능성은 물론 있다. 그러나 무죄하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로마법으로 처형한 로마제국은 무슨 꼴이 되었는가? 로마는 유다 민족지도층에게 질질 끌려 자기의 법을 유린할 수밖에 없는 약자였는가? 아니면 그 재판정은 법이나 정의 따위는 설 자리가 없는 그런 곳인가? 유다 종교귀족들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유 역시 불투명하다. 저들이 정말 종교수호자들인가?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으며, 그것은 바로 신을 모독한 것이기 때문에 처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는가? 그렇다면 저들의 입장에서 저들의 방법으로 그를 처단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민중을 동원하여 투석으로 처단할 수도 있는 그들이었으니 말이다.<sup>32)</sup> 그러나 저들은 로마제국의 힘에 의존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반민족적 거짓증거도 서슴지 않았다. 원래 저들이 예수 처형의 주동자였는데 산헤드린의 권력을 의식한 전승자들이 그 궁극적 책임을 로마에 전가한 것일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나 듣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재판과정이 부정과 불의로 진행되며 모순으로 차 있는 것을 모를 까닭이 없다. 그 재판과정에서는 그 죄에 대한 규명을 끝끝내 하지 못한 채 유다 종교귀족

<sup>32)</sup> 스테파노의 경우가 그렇다(사도 7, 57).

들의 강요에 의해서 로마의 법에 의한 죄명을 씌워 처형한다. 한마디로 더러운 야합에 의한 재판이다. 로마제국과 유다 상류층이 야합하여 일으키는 불의한 현실이 극적으로 압축되어 있다.

이런 현장에서 예수는 외롭게 당하기만 한다. 그는 자기 민족에게 철저히 외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수의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배반과 배신으로 버림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마저 그를 버렸다는 사실이다. 수난사의 전승자는 예수가 마치 하느님에 의해 처형되는 것처럼 서술한다. 게세마니 동산에서의 고투에서부터 십자가상의 절규에 이르기까지 유다세력이나 로마세력은 안중에도 없고 하느님과만 대결하는 예수를 그린다. 예수가 재판정에서 끝내 침묵했다는 것은 전체 맥락에서 보아 진실일 것이다.<sup>33)</sup> 그것은 그가 저들을 상대로 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표시이다. 이러한 예수의 행태에 대한 서술과 철저한 신 부재적 암흑이 지배하는 전체 맥락은 잘 맞물리고 있다.

그는 재판과정과 십자가상에서 철저히 모독을 당한다. 왕도 아닌 데 가짜 왕관과 왕복을 입히고 그 앞에 절을 하며 희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며 채찍질을 하는 등 최대의 모욕을 당하는 그를 그대로 노출한다(마르 15, 5·17~19). 이런 마당에 그 예수는 아무런 저항도 않는다. 유신론자들이 막연히 기대한 신의 간섭은 물론 없었고, 예수 자신의 행태나 말에서도 도도하고 신념에 찬 모습은 전혀 표출되지 않는다. 오히려 메시아사상에 젖은 유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거나 신적 영웅숭배에 젖은 헬레니스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그는 철저히 비겁한 자로밖에 부각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무능한 예수, 이상과 같은 마르코의 예수의 수난에 대한 서술은 예수

33) 예수가 한 말을 분석하여 그것이 그리스도론적 케리그마임을 규명하겠다.

의 첫 민중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가령 마태오에는 예수가 필요하다면 “아버지께 구하여 당장에 열두 군단 이상의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마태 26, 53)라는 말을 첨가함으로써 예수는 무능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특히 루가는 게세마니 동산에서의 외로운 고투의 장에 천사가 와서 수종했으며(루가 22, 43), 예수의 체포현장에서 한 제자가 적대자의 귀를 자른 것을 곧 낮게 함으로써(루가 22, 51) 그의 초능력을 과시하며, 함께 처형되는 강도에게 낙원에서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루가 23, 43). 나아가 그가 죽은 다음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마르코의 전승을 그의 운명 이전으로 끌어올림으로써(루가 23, 45) 예수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약자가 아니었음을 변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그런 것들은 모두 마르코의 철저성을 완화 내지 왜곡한 후대에 의한 첨가 또는 수정 부분들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맥락은 세 복음서 전체가 마르코의 그것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서술이 가능했는가?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로 승격된 지 오랜 마당에 그리고 갈릴래아에서의 초인적인 그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승자 또는 편집자가 이렇게 너무도 비종교적인 적나라한 현실을 그대로 노출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하나의 설명은 저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의 사상이 그것을 뒷받침했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그는 메마른 땅에 뿌리를 박고  
가까스로 돌아난 햇순이라고 할까.  
늪흠한 풍채도, 멧진 모습도 그에게 없었다.  
눈길을 끌 만한 불품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퇴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이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를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이사 53, 2~3).

이상은 멸시당하는 예수의 모습에 잘 부합하는데, 바로 이 고난의 종의 매를 맞고 찢리고 으스러뜨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며, 그래도 한 번도 입을 열지 않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처럼 끌려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반역죄로 사형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 신세를 걱정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고, 인간사회에서 끊기고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했다고 한다(53, 4 이하 참조). 이쯤 하면 예수의 수난 서술이 고난의 종의 형상에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난의 과정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 역사성을 부정하고 이 고난의 종의 형상을 예수의 수난의 서술에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sup>34)</sup>

우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이 고난의 종의 형상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단의 고난사를 서술했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예수의 수난사 자체도 역사적으로 비슷한 상황과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통점을 전제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사를 나타내는 고난의 종의 형상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에게서 바로 이 민족사를 구현하기로 결단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34) 볼트만은 마르 15, 27의 보도가 이사 35, 12부터 엮어낸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은 구약예언의 증명이라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R. Bultmann, *Die Geschichte der synoptischen Tradition*, S. 304/한역본 355면).

런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그는 이스라엘 집단의 수난사의 화신으로 그 수난의 역사를 끝장내려고 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고난의 종에 대한 서술에는 그에 대한 고백이 뒤따른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앓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이사 53, 5~10).

이상에서 고난에 대한 소극적인 시각에서 적극적인 이해로 급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그 고난이 죄의 대가라거나 약하기 때문이라는 등의 소극적 이해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짐을 대신 졌다는 적극적 인식이다. 너의

고난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인식하는 것은 참여자가 되었다는 말이다. 이것은 큰 전환이다. 이것은 고난하는 너와 나의 연대성의 탄생이다.

예수의 민중들이 예수의 죽음을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은 패배요 약함이었다. 그러므로 실망하고 체념하여 도망한다. 그러나 그의 고난에서 자신들의 고난을 보았고, 그의 죽음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보는 순간 바로 예수와의 새로운 연대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그때 그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또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던진 행위라는 인식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인식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린 그가 누구냐는 물음으로 진전되어 예수는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론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sup>35)</sup>

### 우리의 수난, 우리의 부활

마르코복음의 수난사에서 최후의 만찬장에서의 예수의 말을 빼면 예수의 수난의 의미를 암시하는 데가 한 구절도 없다. 그것이 만일 인류를 위한 수난임을 나타내려고 했다면 세계마니 이야기에서부터 운명하는 최후까지를 그렇게 서술할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을 가진 죽음이라 보았다면 어떻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절망적 비명으로 끝맺을 수 있을까! 그리스도론의 시각에서 그런 죽음은 도저히 허락되지 않기에 후에 성립된 복음서는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는데, 그중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요한 19, 30)라고 한 말이 가장 ‘우리를 위하는 죽음’에 상응하는 말이 될 것이다. 여기서

35) 바울로의 십자가 이해(Hans Weber, *Das Kreuz Jesu bei Paulus, Ein Versuch, über den Geschichtsbezug des christlichen Glaubens nachzudenken*, Göttingen, 1981, S. 189).